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칠레, 낙태 금지하고 종교 자유 보장한 헌법 부결



칠레에서 인격권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40년 전 군사 독재 정권이 제정한 헌장을 대체하는 헌법 제안이 부결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의하면, 칠레 유권자들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새로운 헌법 제안을 거부했다. 이날 늦게까지 대부분 표가 집계된 가운데, 이를 투표자 55.8%가 반대, 44.2%가 지지했다.

새로 제안된 헌법 제1조는 “가정은 사회의 기본 핵심이며, 가정을 보호하고 그 강화를 촉진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생명권’으로 시작해 기본 권리와 자유에 대한 긴 목록이 포함돼 있다. 제안된 문서의 16조는 “법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밝히고, 사형도 금지했다.

칠레는 2016년부터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이 제안이 승인됐을 경우, 태아 보호 조항이 마련돼 낙태 금지법 폐지를 뒤집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또 이 문서는 권리와 자유의 목록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이 권리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선택한 종교나 신념을 채택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며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기존의 1980년 헌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칠레공화국 헌법에는 가족을 ‘사회적 기본 핵심’으로 규정한 조항은 있지만, ‘가족을 보호하고 그 강화를 촉진하는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은 없다.

현행법 역시 “법은 태어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개인의 생명권과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제안된 헌법과 달리 ‘태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현행법은 “양심의 자유, 모든 신조의 표현, 도덕, 선량한 관습, 또는 공공질서에 반대되지 않는 모든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종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지는 않는다.

현행법은 부모에게 ‘자녀를 교육할 우선적 권리와 의무’와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헌법과 달리 영적 및 도덕적 교육에 관한 내용은 없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정의를 쓴 쪽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흑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아모스 5:7,14-15)**

하나님, 낙태 금지, 종교 자유 보장, 가정 보호 등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거부한 칠레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뜻을 아는 은혜를 주소서.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 육체의 정욕을 위해 주님을 반역하는 존재적 죄인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와 악을 버리고 생명을 취하게 하옵소서. 칠레의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싸워 칠레에 주님의 정의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주의 말씀을 기쁨과 경외함으로 준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스리랑카, 대대적 마약 단속…1만 5,000명 체포

스리랑카 경찰이 지난 일주일 동안 군부 지원 속에서 진행된 마약 단속으로 약 1만 5,000명을 체포했다고 뉴스이이 전했다. 24일 AFP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경찰은 암호명 '저스티스(Justice, 정의)'로 진행된 이번 작전으로 대마초 272kg, 헤시시 35kg, 헤로인 9kg 등 약 440kg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스리랑카가 마약 밀매의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다며 대대적 마약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경찰 성명에 따르면 1만 3,666명의 용의자가 체포됐고 약 1,100명의 중독자가 구금돼 군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강제 재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보안 관련 업무에 경찰관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는 급습이 중단되지만, 26일 이후 단속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에스겔 18:31)**

하나님, 순식간에 사람의 영혼을 빼앗고 황폐하게 만드는 마약이 대규모로 적발된 스리랑카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이 땅 주민들이 쉽게 돈이 될 만한 마약 산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은혜를 주소서. 사람의 힘으로 끊어내기 어려운 중독과 마약 범죄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시며, 진리의 빛을 스리랑카에 비추사 육체를 위하여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는 복음을 믿게 하옵소서.

### ▲ 파키스탄 기독교인들, 교회 박해 속에서도 성탄 예배

파키스탄의 소수 기독교인이 교회에 대한 박해 중에도 크리스마스를 기념했다. 영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현지 매체를 인용해 “전국 곳곳의 교회와 거리가 그들의 회복을 소망하는 축제의 불빛과 나무로 장식됐고, 축제 의상을 차려 입은 예배자들이 가족과 함께 교회에 모여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전했다. 8월에는 펀자브주 파이살라바드 지역의 자란왈라에서 두 명의 기독교인이 꾸란을 모독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심각한 소요가 일어났고, 이는 파키스탄 기독교인에 대한 가장 파괴적인 공격 중 하나로 기록됐다. 기독교인은 파키스탄 인구 2억 4,100만 명 중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법을 위반할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발은 종종 폭도들의 폭력으로 이어지지만, 거짓 고발자에게는 거의 아무런 처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기독교 공동체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망을 품고 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10-11)**

하나님, 이슬람 국가 안에서 소수의 기독교인으로 살며 당면하는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을 의지해 성탄을 기념하는 이 땅의 교회를 힘 있게 해주십시오. 마치 작은 씨앗 같아 보이는 이들을 통해 파키스탄의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하사 이 땅 가득히 구주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자들의 눈을 밝혀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실을 떠나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는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대만, 4만 개의 부흥기도회 생겨나



2023년, 하나님께서는 전쟁 직전의 위기에 놓인 지역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소식을 CBN뉴스가 최근 소개했다.

연일 이어지는 중국군의 괴롭힘에 맞서 대만은 미국의 신무기로 군대를 강화하며 훈련하고 있지만, 대만 성도들은 이와는 다른 전술인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작은 섬에서 수천 명의 기독교인은 매일 24시간 모여 부흥연합회개자국 보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타이페이 소재 쉐키나 생명의 빵집(Shekinah House of Bread of Life) 목사인 브라이언 루(Brian Lu)는 “대만 교회들의 연합기도와 금식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강하다. 이는 전례 없는 기도 운동”이라고 말했다.

저명한 교회 지도자인 고든 황(Gordon Huang)은 “이렇게 단순한 일이 교회 사람들과 교회 주변인들에게도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대만기독교연맹(Taiwan Christian Alliance)을 이끄는 양 목사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저는 매일, 매주 다른 교회 및 다른 교파 목회자들과 만나 우리의 도시와 나라 및 다른 나라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는 놀라운 일이며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연합은 이 운동이 남긴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만 개가 넘는 부흥기도회(RPG)들이 생겨났고 중국의 지하교회운동 구성원들도 여기 참여하고 있다. 각 기도회에는 약 5명의 구성원이 있어 현재 총합 약 20만 명이 참가하고 있다.

피터 양 목사는 “우리는 30만 개의 부흥기도회를 갖길 원하며 중국 교회들과도 연합해 양안 지도자와 성도들 모두가 함께 모여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가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루 목사는 “우리는 전 세계 교회들에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양안 관계에 임하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중화인들은 서로를 죽이지 말고 마지막 때 선교 운동을 함께 완수해야 한다”고 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한복음 14:12-14)**

하나님,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도의 부흥 소식에 감사드리며, 국가의 위기를 통해 교회들이 기도와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으로 깨어 일어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의 간구에 먼저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대만과 중국 사이에도 주의 화평이 임하게 하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로 전쟁하는 대만과 중국 교회의 생명력이 열방 곳곳에 흘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부흥이 더욱 일어나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 한국, 가정 관련 10대 뉴스 중 3건...‘외로움·우울증’ 관련

가정사역 단체 하이패밀리(공동대표 송길원 김향숙)가 26일 발표한 올 한해 가정 관련 빅이슈를 선별해 꼽은 10대 뉴스 가운데 3건이 ‘외로움·우울증’ 등 단절된 관계 등으로 나타났다. 하이패밀리는 10대 뉴스 중 ‘10억 명 이상이 ‘매우 외롭다’... WHO “긴급한 위협”,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 ‘90% 폭증한 어린이 우울증 환자’ 등의 이슈를 꼽았다.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등을 인용했다. 설문에서는 전 세계 성인 4명 가운데 1명(10억 명 이상)이 ‘매우 외롭다’고 답했고, 고립·은둔 상태에 빠진 한국 청년 10명 중 7명은 자살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령인구 1,000만 시대’와 함께 ‘인구절벽과 출산을 저하’ 등의 한국 사회의 세대 구조 재편 분위기도 주요 뉴스로 꼽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도다(시편 23:1,3)**

하나님, 이 세대를 장악한 외로움과 우울증이라는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실상임을 빛 앞에 드러내 주셔서 온전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병든 자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느라 하나님께서 진정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사랑과 기쁨의 교제는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복음으로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외로움과 우울함으로 소망을 잃게 만드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시고 날마다 자기 죽은 십자가를 지고 목자를 따르는 복된 삶으로 한국의 영혼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 ▲ 콜롬비아군, 1.7t 130억 원어치 마약 코카인 적발

콜롬비아 군대가 최근 마약 카르텔 소유의 반잠수정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선원 4명과 1.7t의 대규모 코카인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24일 데일리메일을 인용, 뉴시스가 전했다. 이들은 반잠수정에 1,678kg의 코카인을 싣고 중앙아메리카로 이동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국은 용의자들을 마약 밀매, 제조,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이들이 유통하던 코카인은 100만 달러(약 130억 원)어치에 달한다. 올 한해 콜롬비아군이 마약 밀매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코카인의 시가는 총 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롬비아는 마약 카르텔과 무장 게릴라군의 자금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마약 소탕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를 덮친 불경기와 정치적 혼란 등으로 마약 문제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 당할 것이니라(신명기 7:26)**

하나님, 경제적 정치적 위기 상황을 틈타 대규모의 마약이 밀거래 되고 있는 콜롬비아에 일하여 주셔서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가증한 마약이 온전히 진멸되게 해주십시오. 소탕 작전에 투입된 군대를 도우셔서 마약 유통으로 범죄 조직을 유지하는 악한 사슬을 끊어 주소서. 죄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실제 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심히 미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기의 영혼을 빛 가운데 지킬 뿐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진 자들을 생명 길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서길 기도합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연말연시, 더욱 기도가 필요한 박해 국가 성도들



많은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따뜻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는 반면,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억압과 불확실성 속에 지내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연말연시를 맞아 기독교인들이 항상 기도해야 할 5개 국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현재 오픈도어에서 발표한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6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그중 절반(1억 명)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에서는 다른 나라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며, 그 수는 하루 평균 14명에 달한다.

샤리아(이슬람법)에 따라 운영되는 북부 주에서는 기독교인이 이류 시민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압력과 박해의 위협에 처해 있다.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도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으며, 종종 신체적 폭력의 위협에까지 직면해 있다.

북한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다. 기독교에 대한 모든 언급은 국가에서 엄격히 금지돼 있다. 신앙을 전하거나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족 전체가 처형되거나 북한의 악명 높은 수용소에 투옥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발각 시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되는 지하교회가 있다. 크리스마스 기념행사도 신자의 집에서, 잠긴 문 뒤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란은 약 8,600만 명 인구 중 120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인구의 대부분은 시아파 무슬림이다. 이란 기독교인들은 교육이 금지되고, 직장을 잃게 되며,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특히 취약한데, 기독교 개종자로 밝혀지면 남편에게 폭행 또는 이혼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자녀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는 약 1억 명의 기독교인이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국가에 제공하는 모든 유익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CCP)은 이들을 위협으로 간주한다. 또 다른 지하 가정교회의 경우 온라인 감시가 더욱 강화됐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대규모로 모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많은 교회 지도자가 체포되어 투옥됐다.

예멘의 교회는 대부분 무슬림 배경의 개종자와 비밀리에 신앙을 실천해야 하는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돼 있다. 그들은 당국(구금 및 심문 포함), 가족, 그리고 ‘배교자’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는 과격 이슬람 단체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예멘은 이제 10년째에 접어든 내전으로 인해 인도주의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독실한 무슬림이 아닌 이들을 차별하고자 모스크를 통해 긴급 구호품이 우선적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예멘 기독교인들은 더욱 취약하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브리서 13:3,8)**

하나님, 신앙 때문에 폭력과 위협, 급기야 죽임을 당하는 박해 국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교회가 외면치 않고 한 몸 된 그들을 생각하며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박해받는 교회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난을 담대히 이기게 하시고, 주를 힘입어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빼앗길 위기에 주를 예배하는 그들의 순종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박해하는 자들에게 흘러가, 그들도 구원의 주를 보게 되길 기도합니다.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 미국, 올해 총기 사망자 4만 2,000명 기록

올해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 25일까지 4만 2,151명을 기록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국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 집계에 따르면, 한 번에 사상자가 4명 이상 나온 총기 난사 사건은 올해 650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706명이었다. 올해 총기 난사 발생 건수는 GVA가 2014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2021년 68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총기로 인한 사망자 중 2만 3,000여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17세 이하 미성년 사망자는 1,654명이었다. 미국 보건당국은 총기 폭력에 따른 사망자 급증을 주요 공중보건 위기로 간주한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듣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누가복음 1:78-79)**

하나님, 분노와 슬픔을 다스릴 길이 없어 총기 난사로 자기와 다른 이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총기 사망 사고가 그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저버리고 육체의 생각을 따르느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의 심령에 돋는 해와 같은 진리의 빛을 비추사 생명을 사모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총기 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자들을 복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사 이 땅의 영혼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 ▲ WHO, 가자지구 전역에 전쟁 폐허...주민들 기아와 절망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 전역에 극심한 기아와 절망감이 만연해 있다며 가자지구 인구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에 “끔찍한 부상, 극심한 기아, 심각한 질병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인도주의 활동가들과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조처”를 취할 것을 27일 촉구했다. 현재 알 시파 병원에는 5만 명, 남쪽의 알 아말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병원에는 1만 4,000명이 머물고 있으며 두 병원은 이재민을 위한 쉼터 역할도 겸하고 있다. 리처드 피퍼콘 WHO 대표는 “새로운 인구 이동으로 이미 인구의 막대한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남부 지역의 의료 시설에 부담이 더 커질 것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며 “강제 대량 이주는 인구 과밀을 심화하고 전염병의 위험을 높이며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이사야 61:1-2,4)**

하나님, 전쟁의 여파로 극심한 위기와 절망을 겪는 가자 주민들을 위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주를 힘입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죄인이 탐심과 미움에 사로잡혀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보며 그 가운데에서 주께로 돌이키는 것만이 소망임을 아는 자들을 찾아 주소서. 큰 고통과 위기를 겪는 주민들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곳 주민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사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